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2월 6일(주일) 제1077호



비긴 어게인(BEGIN AGAIN)

2001년 처음 열린 맞춤형도집회
'비상구'에서 하용조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40~50대 남편 위한 맞춤형도집회 ... 12월 21일 저녁 7시 서빙고 본당

40~50대 만지 않는 남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비긴어게인(BEGIN AGAIN)'이 막 오른다. 12월 21일 저녁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맞춤도집회 '비긴어게인'에는 가수 노사연, 이무송, 탤런트 강석우,

가수 박학기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할 예정이다. 비긴어게인에 남편을 초청한 아내들은 눈물로 간구하고 있다. 12월 2일 열린 1차 요청자 모임에 아내 106명이 참석했다. 12월 9일과 14일에도 요청자 모임을 갖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을 예정이다. 전도본부도 기도회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요청자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따금씩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여성사역 중보기도팀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집회를 섬겨줄 공동체 전도사역자 및 테이블 리더를 모집하

고 있다. 가급적이면 부부가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전도본부와 공동체를 연계할 예정이다.

집회 당일에는 교회 주차장 사용이 제한된다. '비긴어게인 주차권'을 소지한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비긴어게인'은 맞춤형도집회 시대를 활짝 열었던 2001년 '비상구'의 영광을 재현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열린 전도집회 '비상구'에는 40대 남성 1천 명이 참석했다. 그중에서 548명(예수 영접 264명, 긍정답변 284명)이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

문의: 02-3215-3214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2015 장로장립예배 ... 신임장로 33명

낮은 곳에서 섬기기로 결단한 예식

33명의 신임장로가 세워졌다. 2015 장로장립예배를 어제(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교계인사 및 온누리교회 교역자, 장로, 신임장로들의 가족과 지인 등이 장로장립을 축하하기 위해 서빙고 본당을 찾았다.

장로장립예배는 2부로 나뉘어 드렸다. 1부 장립예배는 당회서기 정파종 장로의 기도, 예정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설교, 이상을 장로의 간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장

립식에서는 장로에게, 교우에게 서약, 세족식, 평양남노회 노회장 박영득 목사와 김영길 장로의 축사, 윤형주 장로의 권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낮은 곳에서 섬기기로 결단한 예식이었다.

이날 설교한 예정통합 채영남 목사는 신임장로들에게 "장로는 종중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진짜 일등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2015년 세워진 장로들은 지난 3월

13일 개강해 11월 6일까지 이어진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했다.

이들은 장로사관학교에서 교회론과 목회철학, 바람직한 장로상, 러브소나타 교도 참석, 대표기도법, 치유와 회복, 타문화 선교, CGNTV 위성선교, 사역지 탐방, 성경 파노라마, 온누리 미래를 위한 비전과 동전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량을 훈련했다.

〈관련기사 7~9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2월 14일부터 2016년 1월 23일까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12월 14일부터 2016년 1월 23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5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주제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예배실황은 CGNTV로 방영될 예정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송구영신 새벽기도회'의 새로운 이름이다.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40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캠퍼스별 특순을 선보인다. 12월 19일은 부천, 22일은 강동, 26일은 수원, 29일은 남양주, 1월 2일은 대전, 9일은 인천, 16일은 평택과 서산 성도들이 서빙고 본당에서 특순을 할 예정이다. 12월 25일과 1월 1일에는 성탄축하예배와 신년예배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대신한다.

전도에 여념 없는 열혈 청년들

연극으로 전도하는 백동철 형제와 탁월한 기획자 이종명 형제

여기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다. 전도에 여념 없는 열혈 청년들이다. 그들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도집회를 만들 어낸 숨은 주역들이다. 연극배우 백동철 형제와 오스트리아에서 온 이종명 형제는 여호수아공동체 전도집회에서 뮤지컬 연출 및 조연배우를, 이종명 형제는 허브공동체 전도집회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막 오른 여호수아공동체와 허브공동체 전도집회는 청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뮤지컬과 힙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그들이 흘린 구슬땀이 빛을 발한 전도집회 현장에 다녀왔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뮤지컬 '보물찾기'에 출연한 백동철 형제(왼쪽 첫 번째).

“자네, 지금 뭘 할 텐가? 출세하려면 돈도 있고, 백도 있어야 되는데 자네 뭘가 있나?”

연극 ‘다산, 정약용’에 나오는 대사다. 여호수아공동체 백동철 형제는 오디션 때마다 다산 정약용을 비판하는 노론 역을 연기했다. 이 대사는 10년차 무명연극배우 백동철 형제에게 되묻는 대사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는 늘어 서도 연기하며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무명배우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고, 힘들다.

20대 초반에는 가수를 꿈꿨다. 목포가요제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다. 가수가 되고 싶어 여러 기획사를 찾아다녔다. 세상 음악을 쫓던 그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지 않았다. 세상 음악이 아닌 CCM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생각이 달랐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수의 꿈에서 멀어졌다. 기획사 오디션에는 합격했지만 내는 앨범마다 줄곧 실패했다. 30대 초반부터는 또 다른 꿈이 생겼다. 연기가 하고 싶었다. 연기가 좋아 밤새 영화와 연극을 연구했다. 오디션도 여러 차례 봤다. 연기에 대한 열정도 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낙상사고를 당했다. 응급상황이 벌어졌다. 그를 신앙으로 붙잡아주던 아버지가 당한 사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작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해져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급기야 응급차를 타고 가던 아버지가 피를 토했다. 위급 상황이었다. 그때 백동철 형제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 다. 술과 담배를 모두 끊을 테니 아버지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간절하다 못해 처절했다.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투수로 다가오셨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도하고 오디션에 가면 합격하고,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날렵하고, 까칠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쾌하고 코믹스러운 이미지도 연기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연기했다. 그의 제지와 유머 있는 연기는 호평을 받았다. 고시생, 친일파, 여성성을 지닌 변호사, 노론 역 등 다양한 배역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연기자로서 지경이 넓어졌다.



백동철 형제

연극으로 예수 전하겠다는 꿈

그는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연출 겸 배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꼭 선글라스를 쓰고 왔다. 왜일까.

“예배만 드리면 포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 창피해서 선글라스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이후부터 아웃리치를 정말 열심히 다녔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연극하는 것이 좋아 매년 여름 지방공연을 다니고 있다. 총주 블레싱, 부활절 칸타타, 전도집회에서 다양한 연기와 연출 실력을 뽐냈다. 올해 성탄절 칸타타에서도 감춰둔 실력을 마음껏 선보일 예정이다.

백동철 형제는 여호수아공동체가 ‘보물찾기’를 주제로 개최한 전도집회에서도 큰 역할

을 해냈다. 대본부터 무대연출까지 도맡았다. 백동철 형제와 여호수아공동체 뮤지컬팀의 협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날 전도집회에 무려 1,965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종명 형제

청년들 눈높이와 취향에 맞춘 탁월한 기획

허브공동체 이종명 형제는 한국에 온지 5년 됐다. 올해 24살인 그는 오스트리아에 2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갔다. 모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부모의 나라를 알고 싶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독일어와 영어에 능통한 그는 장학생으로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 문화가 낯설기도 했다.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방황하던 시기, 한국의 선·후배 문화와 술 문화는 달랐다. 한국 땅에 혼자 살면서 신앙적으로 확신을 보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 방황하던 그에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허브공동체다. 그는 친구의 소개와 목회자인 아버지의 추천으로 온누리교회 허브공동체에 오게 됐다.

허브공동체는 그가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 한국생활 적응과 신앙이 성장하는 장(場)이었다.

그는 올해 허브공동체 대표MC를 맡았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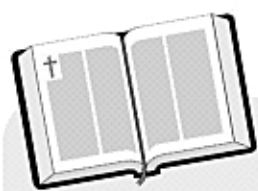
도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역을 도맡아 했다. 허브공동체 전도집회는 청년들의 눈높이와 취향에 맞게 기획됐다. 그가 이 모든 과정을 총괄했다.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어느 날 래퍼들을 발굴하는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y)’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래퍼의 노랫말에 귀 기울였다.

“힘들 땀 무릎 꿇고 주님에게 물어봐, 10년 전에 부족함을 채우고 돌아왔어. 돈 욕심 없어, 내 소신 지켜, 난 주님의 말씀 아래 불을 지피”

그 래퍼의 공연을 보고, 이종명 형제는 허브공동체 전도집회 콘셉트를 힙합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다. 힙합만큼 요즘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주제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자신에게 감명을 준 래퍼 ‘마이크로닷’을 섭외하자고 추천했다. 마침 전도집회 회의에 참석했던 허브공동체 교역자의 지인 덕분에 그와 연결이 됐다.

지난달 27일 허브공동체 전도집회 ‘All For You’가 막 올랐다. 이종명 형제가 이날 진행을 맡았다. 이날 전도집회에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왔다. 130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의 행사장에 155명이 넘게 왔다. 이날 이종명 형제는 교회에 처음 온 청년들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 노력 덕분에 귀한 영혼들이 전도집회에서 예수를 만났다. 친구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청년을 위로하기도 했다. 155명이 참석한 전도집회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다.

허브공동체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집회 뿐만 아니라 ‘캠퍼스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다. 캠퍼스 모임은 대학 캠퍼스 모임을 하면서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지속된다. 이종명 형제는 캠퍼스 모임 사역에서도 열심히 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긴장을 창조적으로 풀어안기

사도행전 6:1~7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모든 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안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이 시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빠지고,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범이었지만 그들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규모가 작은 교회를 만들면 갈등이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규모가 작으나 크나 갈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밖으로부터는 핍박이, 안으로부터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긴장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되는 영적 유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이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에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불평을 만들어내는 공격이었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와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와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1절).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생기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본문에 음식을 분배 받는 일에 사람들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빠졌다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행정적인 실수입니다. 어쩌다 보니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이름이 빠지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빠졌다는 것은 영적인 문

제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불평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으로써 생기는 문화적인 긴장입니다. 그리스와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가졌습니다. 그리스파와 히브리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 안에 실제로 어떤 파가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와 헬라문화가 익숙해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그 두 그룹이 공존했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그곳에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주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그들 안에 문화적인 긴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누락된 사람들이 그리스와 유대 사람들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 구제대상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갈등이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재정립해야

아무 문제가 없듯이 넘어가는 것도 문제이고, 문제가 더 크게 비약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며 풀어안았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이 문제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결해 나갔습니다. 긴장과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긍정적인 공동체로 만드는지입니다.

본문에 사도들이 긴장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하여 열두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2~4절).

첫째,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재정립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음식을 분배받는 대상자가 누락되면서 갈등과 긴장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해결책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정반대로 보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긴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고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더 힘써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들이 구제와 봉사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게으름 피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의 생명이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생기는 더 큰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누락된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겉으로 볼 때는 행정적인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서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행정의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봉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생기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바로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희미해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많은 긴장과 갈등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어떤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사역도 올바른 방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일을 분담시켰습니다. 사도들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안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권위는 강압적인 권위가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제안하는 수평적 권위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나옵니다. 사도들의 제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일곱 명을 세워 이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직의 효시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직은 영어로 ‘Deacon’이라고 하며 교제와 나눔, 섬김의 직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역시 사람입니다.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보다 사람이 대안입니다.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보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사람이 아니라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공동체로부터 평가된 사람들을 세우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성령 충만은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칭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13면에 계속)

IT인의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로 밝혀진 말씀의 능력 ... 사회와 국가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창조
국민교육, 언론출판 자유, 남녀평등, 노예해방, 민주주의, 산업혁명 이끌어낸 건인차



고건 장로

“IT 전공자의 눈에는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비칠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능력이 있는가?”

과학자에게는 증명이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말씀이 보급되던 그 시기와 장소로 가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보면 된다. 성경책의 광범위한 보급은 16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기 유럽에 종이와 인쇄술이 전해지면서 성경책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종이와 인쇄술은 정보를 다루는 'IT 기술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 주변에 항상 널리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종이나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만들려면 수백 마리 양을 잡아 가죽을 가공해야 했고, 수년에 걸쳐 고급인력들이 정성을 다해 필사해야 했다. 16세기까지 전 세계에 보급된 성경책이 3,000권도 안 됐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다. 그나마 있던 성경책은 모두 라틴어였다. 16세기까지 아주 극소수의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프로테스탄트(개신교)만 국민교육을 시켰다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는 대대적으로 '프로테스탄트(개신교) 박해'가 가해졌다. 독일에서도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남자의 3분의 1 혹은 절반이 죽었다.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북유럽과 바다 건너로 떠났다.

이때부터 영국이 프로테스탄트 종주국이 됐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성경을 널리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급하자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

다. 국민들 대부분이 문맹이라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교육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갔다(미국의 하버드·예일대, 한국의 배재·연세 등도 그 예이다). 서울대학교 박지향 교수는 영국에서 문맹이 빠른 속도로 사라진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남자 중 1500년대에는 10%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지만, 1600년대에는 25% 이상이 읽고 쓸 수 있었으며, 1700년대에는 약 50%가 이 범주에 들었다. 영국의 문자 해독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성경을 읽고 직접 신과 교통한다는 신교문화가 잉글랜드인의 문자 해독에 가장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만 국민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사회들은 국민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당시 유럽에는 몇 가지 종류의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 첫째, 인본주의 르네상스 학교다. 인본주의 르네상스 학교는 교육 목표가 고전연구였기 때문에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을 가르쳤다. 그러나 인본주의 르네상스 학교 교육은 평민과는 관계가 적었다. 부자와 귀족들의 자녀들에게만 교육을 시켰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르네상스 학교들은 16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부유한 상인의 아들, 귀족의 아들들만 훈련시켰다.”

중세 가톨릭도 비슷했다. 중세 가톨릭은 오랫동안 라틴어 성경만 인정했는데 라틴어 교육은 수요가 적어 중세 가톨릭교회도 일반국민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지는 않았다.

계몽주의 국가는 어떠했는가? 프랑스 계몽주의는 과거 권위를 일체 부정하는 가운데 왕뿐 아니라 기독교 성직자들도 대대적으로 살해하고, 교회 재산도 몰수하였다. 그 결과 교회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프랑스 계몽주의 정부가 교육 예산을 낸 것도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쟁비용 때문에 교육에 쓸 예산이 없었다. 무엇보다 계몽주의자들은 살롱이나 궁정에서 상류층과 교류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뿐 평민교육이나 평민계몽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처럼 무신론적 인본주의나 계몽주의 사회는 국민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국가에 의한 공교육은 어떠했는가? 역사 기록을 보면 국가가 공교육을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다. 공교육이 이

처럼 오랫동안 실시되지 못했던 이유는 특권층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평민들을 교육시킬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축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교육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고, 공교육 없이는 국제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하는 수 없이 공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개신교 국가 영국부터 언론출판 자유

프로테스탄트 국민들이 문맹에서 깨어나자 신문이 많이 팔리고, 언론사들이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또 교육받은 국민들이 언론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유럽에서 신문이 가장 먼저 출현한 곳은(종이와 인쇄술이 지리적으로 먼저 보급된) 오스만 터키나 독일 같은 대륙 국가들이었지만, 자유 언론출판이 먼저 정착한 곳은(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영국부터였다. 왜냐하면 대륙 국가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을 많이 추방하였고, 프로테스탄트들을 추방한 집권 세력들은 국민들에게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이다. 그처럼 국민이 문맹인 사회에서는 자유언론이 정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영국이 지닌 주요 장점 중의 하나”라고 했다. 프랑스의 볼테르는 “영국이 자유언론에 의해 국민의 사고력이 고무되는 유일한 국가”라고 칭송했다.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자유로운 언론출판 덕분에 영국은 압제와 침묵을 강요하는 전제정치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럽 대륙에서는 그들이 표방하던 ‘이성·계몽주의’라는 정신에 걸맞지 않게 자유 언론출판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교육 부재가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반면 영국에서는 교회로부터 교육받은 다수 국민의 힘이 자유언론을 억압하려는 세력에 맞서 힘차게 언론출판 자유를 쟁취해나갈 수 있었다.

성경 때문에 싹트게 된 '남녀평등'

성경 말씀이 보급되자 국민들이 교육받기 시작했고, 교육받은 국민들이 신문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되자 프로테스탄트 국가들부터 평등사회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한 예로 여성투표권을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1893년에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호주(1902년), 핀란드(1906년), 노르웨이(1913년), 덴마크(1915년), 아이슬란드(1915년), 캐나다(1917년) 등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속속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4년이 되면서 계몽주의 국가 프랑스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다. 르네상스 국가 이탈리아도 1946년에, 인본주의 산실 그리스도 1952년에 가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가 여성투표권을 주던 시기에 이미 북한(1946년), 베트남(1946년), 파키스탄(1947년)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 무신론 인본주의, 계몽주의 국가들의 남녀평등 성적은 거의 꼴찌인 셈이다. 역사학자 김민제 교수의 저서에 의하면 남녀평등 사상은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서 성경 때문에 싹트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국혁명 기간 동안에 여성의 자의식은 크게 향상되어 여성들이 토론을 하고 투표하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성경을 읽고) 여성이 신의 모습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을 확인하며... 영국혁명을 통하여 여성의 자의식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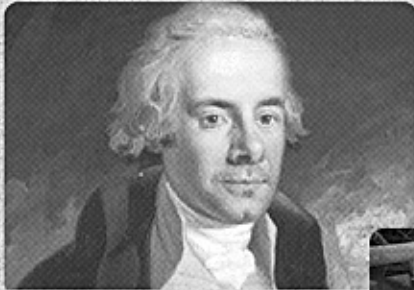
여기서 말하는 영국혁명이란 프로테스탄트들이 구(舊)체제에 대항해서 일으켰던 정치·사회·종교 개혁운동이다. 즉 남녀평등 사상은 성경이 영국 사회에 널리 보급되면서 밀로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프로테스탄트 '월버포스'가 노예해방 운동 시작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녀평등 못지않게 대두된 이슈가 흑백평등, 노예문제였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영국의 독실한 프로테스탄트였던 월버포스가 노예해방 운동을 시작하였다(1787년). 그가 이러한 운동을 시작한 동기는 순전히 프로테스탄트 믿음 때문이었음이 역사에 의해 밝혀져 있다(부패한 사회를 개혁한 영국의 양심 월버포스, 두란노).

프랑스도 1789년 혁명에서 “모든 남자는 자유이고 평등하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전해들은 Haiti(아이티) 흑인 노예들은 당연히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프랑스는 수만의 군대를 파병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오히려 5만 명의 군인을 잃고 패배한다.

본 성경의 힘



노예해방운동을 펼쳤던 '윌리엄 윌버포스'



▲ 인쇄소에서 작업중인 구텐베르크를 묘사한 상상도. 인쇄술 발달은 유럽의 종교개혁, 과학혁명을 촉진했다.

◀ 국민교육의 영향으로 시작된 영국 산업혁명.

프랑스는 노예를 군사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는 수 없이 1848년에 뒤늦게 노예제 폐지를 선포했다. 영국과 미국 백인들의 자발적인 노예해방과 계몽주의 국가의 군사적 패배로 인한 노예해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세계사 과목에는 프랑스 노예해방을 크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산업혁명, 과학기술 발달은 국민교육의 결과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 국민교육을 시키고, 자유 언론출판이 정착되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운동이 힘을 받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은 앞장서서 의회법치 민주주의 관련법들을 속속 만들어 나갔다. 인권보호법(1679, 영국), 양당제(1689, 영국), 민중헌법(1787, 미국), 국민투표(1847, 스위스), 비밀투표(1856, 호주),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1867, 영국), 모든 여성에게 선거권(1893, 뉴질랜드), 모든 여성에게 피선거권(1906, 핀란드) 등 민주주의 이정표 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들이 모두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서 속속 제정되었다. 무신론 인본주의, 계몽주의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법들이 선도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오직 성경 때문이다. 미국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역사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계몽주의 이론가들은 결코 민주주의를 만들지도, 추천하지도 않았다.”(theories of Enlightenment did not create, nor they even recommend, democracy)

에일대학 Dahl 교수는 “계몽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실제 시행되는 제도라기보다는 일부 소수 사상가들의 이론적 논

의의 주제였을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몽주의 국가는 국민교육 없이, 언론출판 자유 없이, 몇몇 계몽주의자들만 엘리트 위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다 실패하였다. 이에 비하여 미국과 영국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들이 문맹을 퇴치시키고, 기독교 이념에 기반을 둔 시민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갔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시작되었을까. 그 비밀은 무엇보다 국민교육에 있다. 국민들이 문맹이었다면 어찌 그러한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겠는가. 산업혁명은 평민들이 이룩해낸 혁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00년대 초부터 발명을 주도한 사람들은 교수와 같은 엘리트층이 아니고, 기술자 같은 평민층이었다고 한다. 산업혁명 개발 지역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도시가 아니라 맨체스터, 글래스고와 같은 지방이었다. 1500~1600년대부터 교회가 평민교육을 전국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1700년대부터 지방 평민들이 발명을 할 수 있었겠는가. 교회가 교육시킨 평민들이 생산현장에서 그 지식을 발휘한 결과가 바로 방직, 에너지, 수송 등의 기술개발로 이어진 것이다. 기술 뿐 아니라 과학을 개척한 뉴턴, 케플러 등도 모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제공한 교육 덕분에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대 과학과 산업혁명 기술은 오직 영국과 미국에서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성경적 직업평등 사상에서 비롯된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본주의 문화

과거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공업을 멸시

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직업은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것이므로 모든 직업은 존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직업평등 사상이 퍼져 나가 비로소 최고 엘리트들도 상업, 농업, 공업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농업혁명, 금융혁명, 상업혁명 등 혁신이 모두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반면 유럽 대륙 국가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관료와 군인과 지주 직업만 선호하고 상업, 공업은 기피하였다.

또 프로테스탄트들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기업 활동으로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였다. 직장은 ‘돈벌이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바뀌었다. 직장에서는 타인을 의식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해서 양질의 노동력이 확보되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경영자들은 분식회계를 하지 않고, 장부를 정직하게 기록했으며,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섞지 않고 법적으로 반듯하게 분리했으며,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아무도 강제한 일이 아니다. 다만 성경에 기반을 둔 청지기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자 좋은 인력과 많은 자본이 모여드는 제도과 문화가 생겨났다. 그들은 돈이 모여도 사치하지 않고 재투자하였으며, 모아진 재산은 사회에 환원시켰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본주의 문화가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탄생된 것이라고 Max Weber는 사회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말씀인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이 좋아·인쇄술로 성경을 널리 보급하자 국민교육,

언론출판, 남녀평등, 흑백평등, 민주주의, 과학기술, 산업혁명, 자본주의와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순식간에 맺어졌다. 비슷한 시기, 무신론 계몽주의 국가는 구체제 파괴에는 성공했지만 새로운 체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무신론 이성주의자들은 국민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수 엘리트만 여전히 권력을 독점하였으며, 우민(愚民)사회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다른 종교들도 교육시키고, 다른 종교들도 경전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아직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다. 여전히 프로테스탄트 국가들만 의회 민주주의 평등사회이고,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만 90%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있으며, 프로테스탄트 사회에서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다. 왜 그럴까?

경전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전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전 내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말씀인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으로 성경 말씀은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능력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는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 28:1).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 5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프라하에서 시작된 여정은 드레스덴을 거쳐 라이프치히로 이어진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루터의 도시를 찾아다니기에 아주 편리하다. 라이프치히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계가 깊은 도시다. 이곳에서 그 유명한 라이프치히 논쟁(1519년 6월 27일~7월 16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 미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 받고 파문당했다.

라이프치히 논쟁이란 루터와 가톨릭교회 대표 에크(Johann Eck)가 플라센부르크 성에서 벌인 신학적 논쟁을 말한다. 여기에서 루터는 교회가 안 후스를 정죄한 것은 큰 과오였다고 지적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연옥은 없으며, 면죄부와 고해성사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크는 논쟁 이후 종교개혁이 확산될 것을 두려워해 당시 교황 레오 10세에게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시킬 것을 제안했다. 1520년 6월 15일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고, 그의 저서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 사건이 독일 사회에 알려지면서 루터의 지명도가 높아졌고,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라이프치히에서 반드시 찾아가 봐야 할 곳

은 성 토마스교회(St. Thomas Church)다.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 교회에서 라이프치히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논쟁에 참여할 루터 진영의 사람들과 가톨릭교회 진영의 사람들이 첫날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다음 날부터 진행될 논쟁의 규칙을 결정하였다. 예배당에 잠시 앉아 있노라면 루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둘째, 이 교회에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1685~1750)가 27년 동안 음악감독으로 사역했기 때문이다.

음악가 바하는 루터 서거 이후 약 100년 뒤에 출생했다. 그가 태어난 도시 아이젠나흐(Eisenach)는 루터의 개혁신앙을 간직하고 있던 도시였다. 바하는 루터의 개혁신앙을 음악으로 계승하였다. 그는 루터의 개혁신앙을 이어받았고, 그 신앙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바하는 당시 음악인들의 최고 로망이었던 궁중 악장으로서 부와 명예가 보장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부자들과 정치인들의 잘못된 삶에 회의를 느꼈고, 그들을 위해 음악을 하는 것이 신앙 양심상 많은 부담이 되었다. 궁중 악장으로서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신앙이 세속적 환경을 거부한 것이다. 기록과 세속, 의와 불의, 정직과 거짓은 항상 대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바하는 궁중 악장 직분을 내려놓고, 토마스교회 음악감독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비록 열악한 조건에서 27년 동안 사역했지만, 교회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대작들을 남겼다. 마태수난곡, 요한수난곡, B단조 미사곡 등은 제목은 몰라도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봤을 그의 대표적인 곡들이다.

라이프치히 곳곳에 묻어있는 신앙인들의 흔적



▲ 성 토마스교회 광장의 바하 동상

바하의 삶과 작곡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속 메시지를 음악으로 구현했다.

개혁신앙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은 무엇을 전공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악보 곳곳에 JJ(Jesu Juva 즉 Jesus help)를 적고, 작품을 마무리할 땐 SDG(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라고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개혁신앙을 이어받은 신앙인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바하는 생전에 영광을 누리지 못했지만 100년 후 음악감독이 된 멘델스존이 마태수난곡을 연주하면서 비로소 바하의 진가가 드러났다. 성 토마스교회 안에는 바하 시대의 오르간과 그의 묘가 있다.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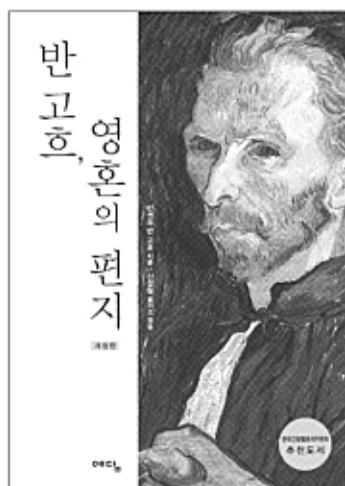
예배에 참석해서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 바하가 살아있는 것 같은 감동이 밀려온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열리는 바하소년합창단의 연주회도 적극 추천한다.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트램을 타고 바하 하우스, 멘델스존 하우스, 슈만 하우스를 찾아다니면서 라이프치히를 만끽하는 것도 좋다. 거리 악사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듣는 것도 라이프치히 여행의 맛 중 하나다.

니콜라이교회도 방문하면 좋다. 이 교회는 월요평화기도회로 유명하다. 1982년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가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데 영적 주역이 되었다. 1989년 10월 16일 전국으로 확산된 '침묵 비폭력 평화시위'가 11월 9일 베를린장벽을 무너지게 했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앙의 흔적을 돌아보고 쓴 글입니다. 8회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이성민 전도사(여호수아공동체)



벌써 2015년 12월이다. 올해 남은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반고흐, 영혼의 편지〉를 읽으면 좋겠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반고흐가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았다. 그의 작품 철학과 인생관

이 담겨 있다.

빈센트 반고흐는 1853년 3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화랑 직원, 서점 직원, 전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다. 1889년 27살에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반고흐는 오늘날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다. 그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삶은 녹록치 않았다. 그는 평생 가난과 고독, 질병에 시달렸다. 동료와 다투고, 자신의 귀를 자르기도 했다. 불쌍한 매춘부를 도우려다 결혼을 하는 하연, 정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게다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와 광적인 신앙심으로 다른 종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의 생전에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팔리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고독과 어두움만 있었다. 그런 반고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동생 테오의 역할이 컸다.

테오처럼, 예수님처럼

이 책은 반고흐가 아닌 그의 동생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 그의 동생 테오는 헌신적인 지지자였다. 평생 동안 형의 생계를 책임졌다. 작품 활동의 유일한 후원자이기도 했다. 당시 반고흐의 작품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테오는 형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낙담한 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다. 경제적 후원을 끊임없이 했다. 그런 동생 덕분에 반고흐는 인생의 숭한 위기를 꽃게 이겨내고, 화가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책은 빈센트 반고흐의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 이야기도 잘 설명해준다.

성경에도 반고흐와 테오 같은 인물이 있다. 다윗에게 요나단, 바울에게 바나바가 그런 존재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 이와 같은 지지와 후원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가능했을까.

반고흐와 테오처럼 성향이 다른 두 인물 중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누구나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가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바로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테오와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옆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가치를 알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친 영혼들에게 힘이 되어줄 때 그들이 반고흐의 작품처럼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다.



목회자들이 신임장로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고있다.

신임장로 33명이 장립됐다. 지난 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15 장로장립예배를 드렸다.

2015 장로장립예배는 낮은 곳에서 섬길 것을 결단한 거룩한 예식이었다. 대접받고 높임받는 장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나누겠다고 결단한 축복의 장이었다.

장로장립예배는 1부 장립예배와 2부 장립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장립예배는 장로합창단의 찬양을 시작으로 당회서기 정파종 장로의 대표기도, 채영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의 설교, 이상을 신임장로의 대표 간증 순으로 진행됐다.

정파종 장로는 대표기도에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어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진짜 일등’을 주제로 설교했다. 채 목사는 신임장로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짜 일등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3명의 신임장로를 대표해 간증한 이상을 장로는 “낮은 자로서의 초심을 잊지 않고, 진정한 예수바보가 되겠다”고 밝혔다.

2부 장립식은 서약, 세족식, 안수기도, 박영득 목사(평양남노회 노회장)와 김영길 장로의 축사, 윤형주 장로의 권면, 축하연주(손인경, 김두민, 이지원)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에서 박영득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거룩한 기도로 세움 받은 장로들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가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했고, 김영길 장로는 “신임장로들을 통해 온누리교회가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형주 장로는 후배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장로들도 죽어라”고 권면했다. “장로들이 죽

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역, 가정,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은 신임장로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겼다. 선배 장로들은 장로라는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게 된 후배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신임장로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릎 꿇고 발을 씻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목회자와 선배 장로들의 모습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낮은 곳에서 섬기겠노라 다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채영남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온누리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리더십 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성령님이 주신 되시고, 예수님의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섬기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와 장로들이 진짜 일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일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는 실력을 키우고 권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등

은 대접 받고, 높임 받는 일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일등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온누리교회도 주의 뜻을 따라 낮아지고, 지역과 민족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2).

여러분, 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흘러갑니다. 낮아지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복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진짜 일등

마가복음 10:42~45

복은 물과 성격이 같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딱 한 조각 만들지 않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고, 섬기는 데에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한국 교회가 칭찬받을 것입니다. 낮아진 자세로 섬기면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일등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격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이 살 때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온누리교회가 진짜 일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2015 장로장립

“이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김도영 장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사역지 탐방을 통해서 온누리교회의 사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장로로서의 리더십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다시 다짐합니다.

“헌신, 순종하며 부르신 곳으로”



김지홍 장로

부족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장로라는 과중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임장로 33명이 세워졌다. 3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어진 장로사관학교와 장로고사를 거쳐 온누리교회 장로로 세워졌다. 신임장로 33명은 장로임직예배에서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발취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신임장로들의 다짐을 정리했다(가나다 이름순).

“초심을 잃지 않고”



이상열 장로

알아 갈수록 더욱 감동을 주는 온누리교회의 창립 30주년에 장로라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에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충실하겠습니다.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채수삼 장로

13기 장로사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동기 장로들과 만나게 된 것도 정말 기쁩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성의 기초가 튼튼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지하고, 경외하고, 시인하는”



김동언 장로

주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오직 이 나라 한없이 내려가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종이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시인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장로 되도록”



김태경 장로

제가 장로사관학교를 무사히 끝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로 세워지면서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은 감격과 함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바람직한 장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삶에서 실천하는 ‘예수바보’”



박승우 장로

온누리교회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장로로 피택을 받고 훈련받을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게 된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예수바보’가 되겠습니다.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며”



손태웅 장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섬길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며, 공동체를 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바보의 흔적을 남기는”



이종우 장로

더 낮고 따뜻하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바보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깊은 영성과 창조적 비전을 갖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최창길 장로

자격 없는 저에게 장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풀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허락하신 여생을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충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김용호 장로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게 하소서. 저 스스로 큰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 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



문현구 장로

불에서 건져진 나무 조각 같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생명 대에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박지수 장로

장로사관학교를 통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는 장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장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더욱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바보행전의 증인”



원종호 장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라고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섬기고 예수바보행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늘나라 청지기”



이태열 장로

먼저 없던 집안에서 처음 믿은 것도 은혜인데 장로 직분까지 주시다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천대만대 이어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는 ‘하늘나라 청지기’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한왕석 장로

허물 많은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 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위해 바보로 살아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본이 되도록 돕는 장로”



김종호 장로

대한민국 광복 70주년과 온누리교회 창립 30년 해에 장로로 정립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험이 되고, 종교 귀족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같은 축매 역할”



박군명 장로

장로사관학교는 부족한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축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깨닫고, 회개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바보행전’의 비전이 선포되는 현장을 목도하고, 부르심을 받은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겸손히 기도하는 장로”



박해안 장로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에 맞춰 장로사관학교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로 보살피며,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예수바보행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의준 장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우 5시에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 주심(마 20:1-16)”과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으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합당한 삶 살기를”



이태한 장로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허규회 장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부족하고 흠 많은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며 섬기는 중”



김준홍 장로

이 땅에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생각하고,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풍성한 ‘예수나무’가 되기를”



박동현 장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예수 종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한 예수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이 땅에서 효험이 많추는 그 날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 종독자로 살고 싶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방찬중 장로

제가 장로로 세워진 모든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장로로서 더 낮은 곳에서, 더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부드럽고 따뜻한 장로”



이광순 장로

낮은 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인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부드럽고 따뜻한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잘 못해도 늘 성도들과 교제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비전이 성취되도록”



조성민 장로

미국이 선교의 대상이 되리라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민 15세인 제가 장로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이 라고 믿습니다.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성취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황윤일 장로

장로사관학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과정의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깊은 영성, 따뜻한 감성, 절제된 창조성, 아름다운 팀워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장로로서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예수바보행전의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는”



김지현 장로

만민이 마음과 입술만이 아닌 순종과 실천으로 고백되는 장로가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 장로,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거룩한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박성호 장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택하시어 장로로 기쁨 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존중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장로”



서병화 장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아는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이규천 장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리에서 쓰임 받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바보행전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장로”



조성환 장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부부가 하나 되어 복음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겸손히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엔젤트리 앞에서 한 성도가 이웃들의 사연을 읽고 있다.

“이웃들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사회선교부, 20일까지 엔젤트리 후원자 모집

사회선교부에서 엔젤트리 후원자를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소외된 이웃들의 사연이 담긴 신청서는 오늘(6일)까지 접수 받는다.

현재까지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에서만 사연신청서 1,662건, 그리고 후원약정 384건이 접수되었다. 사연신청에 비해 후원약정이 현저히

적어 더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엔젤트리 후원자가 되려면 서빙고와 양재를 비롯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 게시판에서 사연을 뽑아 후원 약정을 한 후 요청된 선물을 일주일 내에 발송하면 된다.

엔젤트리는 1972년 미국 알라바마주 교회들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계 준 성탄 선물을 수감자들이 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달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재소자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름으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문의: 02-3215-3355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온누리 아트비전 12월 특별전시회

서빙고와 양재 카페 ... 수익금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누리 미술인선교회 아트비전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1층 카페와 양재 온누리교회 원형카페에서 12월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 계속된다. 특별전시회에서 판매된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시회의 주제는 '예수바보행전'이다. 아트비전 소속 예술가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들이다.

온누리 미술인선교회 아트비전은 예술문화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세워진 미술인들의 모임이다.

문의: 황혜성 팀장 010-4876-235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연합챔버와 온사랑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CGNTV 후원 위한 연주회 성황

온누리교회 연합챔버 주최

온누리교회 연합챔버가 CGNTV 후원을 위한 연주회를 개최했다.

지난 30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 연주회에 CGNTV를 사랑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가득 모였다.

음악회 지휘는 이정근 장로가 맡았다. 이날 온누리교회 연합챔버는 주옥같은 찬양을 선보였다. 총 14곡을 연주했다. 피아니스트 이지원은 따뜻한 성탄을 표현하는 피아노 연주를 들려줬고, 손인경 집사는 거룩함과 섬세함이 묻어있는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다. 온사랑합창단과 온사랑 어머니합창단의 공연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소프라노 황후령은 관객들과 함께 '축복하노라'를 합창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CGNTV를 통해 선교하는 마음으로 음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CGNTV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동지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결혼 매칭 프로그램 'iWe+' 1기 참가자 모집

형제 4명, 자매 15명 대상, 서둘러 신청해야

온누리교회 결혼 매칭 프로그램 'iWe+'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976년생~1979년생 자매 15명과 1970년생~1976년생 형제 4명을 기다리고 있다. 참가신청은 추천서(자인, 교역자, 직장 동료),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iWe+' 1기

는 2016년 1월 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지금까지 'iWe+' 프로그램은 4주 동안 진행됐지만 'iWe+'는 하루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iWe+' 1기에서는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 성격유형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순예 권사는 "'iWe+'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iweonnuri4u@gmail.com

제출서류: 추천서(자인, 교역자, 직장 동료),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서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스타트리 아카데미 총무교사 모집

안산 M센터, 영어회화 가능자 우대

안산 M센터에서 스타트리 아카데미 총무교사를 모집한다.

스타트리 아카데미(Star Tree Academy)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영어전문학원이다. 학업능력 향상과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자녀교육 기관이다.

스타트리 아카데미 총무교사는

20대 후반부터 39세 이하 성도가 대상이다. 행정사무, 학생 및 교사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현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다문화사역에 관심이 있고 영어회화 가능자를 우대한다.

문의: 이경숙 전도사

(010-5034-0032)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70기 사이닝 글로리 참가자 모집

70기 '사이닝 글로리'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이닝 글로리는 온누리교회 대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이다.

70기 사이닝 글로리는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파주 제자수양관에서 개최된다.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회비는 38만원이다. 사이닝 글로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경험한 성도들은 영성을 회복하고 치유를 경험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문의: 오기현 간사(02-3215-3726)

NGO 더멋진세상, 청년인턴 사원 모집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12월 13일까지 신청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함께 할 청년인턴 사원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이 대상이다.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ODA자격증보유자, NGO 계통 전공자 및 경력자, 영어와 불어 능통자, 편집디자인 관련자를 우대한다.

홈페이지(http://oda.incruit.com)에서 더멋진세상을 검색후 지원서를 작

성하면 된다.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서류전형은 통과하면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하게 된다.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 청년인턴 사원으로 채용되면 국내본부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최대 12개월 근무가능) 근무하게 된다.

문의: 최진혁 실장(02-2271-2246)

betterwork37@gmail.com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제1077호 | 2015년 12월 6일(주일)

■ 은빛날개 세미나 4기 수료 간증



은퇴 이후 삶 이렇게 살아가!

/ 심양섭 집사(영등포구로공동체)

나는 올해 예수네살이다. 퇴직 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자연히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의 능력 이상의 성취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실망감이 지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생존과 성취를 위해 취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혼합되어 모든 일에 열정이 사라졌다.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친구의 소개로 퇴직 후 삶에 대해 다루는 은빛날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시간적 여유와 외로움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 내용이 공감되어 앞으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노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비활동적, 약함, 추함 등 부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은빛날개 세미나 담당 노치형 목사는 늙음을 '빛으로 가는 통로', '지혜로운 존재'라고 하셨다. 늙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니! 늙음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이 철학적이고 시적으로 들리기까지 했다. 내가 여기에 속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어린이, 성장하면 어른, 성숙하면 어르신이 되는데 이것은 식물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아하면 싹, 자라면 꽃, 또 자라면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노년기는 삶에서 얻은 지혜로 열매 맺는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배웠다. 살아오면서 겪은 갖가지 일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였고 여기에 성경 말씀이 더해져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빛날개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은퇴 이후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제시해주었다.

첫째 '늙음'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성숙'이라는 단어를 취하라. 둘째 '자신의 과거'가 '미래의 밑거름'임을 기억하라. 셋째 '어르신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후배들'에게 경험을 '무상'으로 제공하라. 넷째 노년의 여유를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라.

참으로 지당한 내용이다. 퇴직 후 삶의 의욕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나에게 은빛날개 세미나는 정체성과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었다. 정말 유익한 세미나였다. 고령자들을 위해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신 교회와 담당자들, 봉사자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은빛날개 세미나가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기를 소망한다.

■ '온누리 키즈 바이블'에 참석하고 나서



/ 양정희 성도(서빙고 초등1부 학부모)

교회에서 차려준 말씀식탁

교회에서 차려주는 말씀식탁은 늘 기대 이상이다. 우리집 말씀식탁과 비교하면 잔칫상이다. 이번에 진행된 '온누리 키즈 바이블'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성경을 읽을지를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사도행전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행복은 잠시였다.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도중에 잠이 들고 찬양하다 뛰어다니고 사도행전 7장까지 읽으면 성경을 그만 읽자고 했다. 그렇게 매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지쳐있던 내게 '온누리 키즈 바이블'이 열린다는 소식은 대환영이었다.

온누리키즈 바이블은 엉덩이 아래 지도를 깔고 머릿속으로 환상 지도를 그리고 그 위치에 가서 앉아 말씀을 전해 듣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앉은 곳은 갈라디야였다. 미션들을 수행할 때마다 따라 외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 머릿속에 말씀이 확실히 입력이 되는 것을 느꼈다. 목사님을 따라하며 스테판 집사님도 만났고, 바울 아저씨처럼 전도여행도 다녔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외을 때는 함꼐 소리를 냈다. 어느새 아이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에서 다시 사도행전 말씀식탁을 차

렸다. 신선했다. 처음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지루해하던 아이들이 온누리 키즈 바이블에서 배운 동작을 따라했다. 내가 틀린 부분도 지적해줬다. 2차 모임에서 하게 될 동작들을 미리 확인하고 연습도 했다.

둘째 아들 8살 명현이는 눈을 뜨자마자 "일찍 준비해서 1차 모임에 왔었던 갈라디야 땅에 앉아 있지!"라고 했다. 11살 규형이는 무슨 일로 마음이 상했는지, 온누리 키즈 바이블에 가지 않겠다고 부들됐다. 무거운 마음으로 명현이를 먼저 들여보냈고 규형이의 마음이 왜 상했는지를 물었다. "1차 모임은 기대보다 재미있었고 사도행전이 궁금했는데 2차 모임은 엄마의 결정이라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규형이의 행동에 난감했다. 그때 김진아 전도사님을 만났고 규형이는 다시 온누리 키즈 바이블을 참석하게 되었다.

두 아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삶을 통해 보여주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도 알 것 같았다. 규형이는 웃으며 내 품으로 달려왔다. 이번에도 미성숙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도와주셨다. 2차 말씀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자녀들과 내 마음이 회복되었다. 나와 아이들이 함께 쓰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 42기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행복한 부부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 김철현, 이효은 부부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4개월 조금 지났다.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젊은부부학교는 우리 부부의 주된 나눔 거리다. 우리 부부는 42기 젊은부부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 젊은부부학교는 이름 그대로 젊은 부부들이 모여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는지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나의 이러한 핑크빛 생각은 두 번째 시간에 산산이 깨졌다. 나의 부모님은 워낙 사이가 좋으셨다. 그래서 나는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 다른 가정도 우리 부모님처럼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았다.

젊은부부학교는 현실적인 부부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부관계는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배려하고 끝없이 겸손하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상대방에게 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젊은부부학교에 같이 참석해 준 남편에게 무척 감사하다.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

이다.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겠노라고 한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거기까지였다. 조금 더 깊은 믿음 생활, 교회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이번 젊은부부학교에서 조모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나눔이라는 것을 했다.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내게 물었다.

"오래된 친구들하고도 나누기 힘든 이야기를 어떻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눈물을 보이며 말할 수 있지?"

그 모습에 놀란 눈치였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 6시에 조원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남편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했다. 젊은부부학교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많다는 것이 느껴졌다.

결혼 전에는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정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가 숙제인 것 같다.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 원리를 배울 수 있었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 신앙 시



/ 서정원 안수집사(관악금천공동체)

안수집사가 임직 받던 날

오늘은
과거 나의 소망의 날이었고
지난날 나의 장래였습니다.
나의 장래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보니
과거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의 장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끄시고 오늘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오늘은,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풀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가깝게 혹은 멀리
또 다른 장래의 소망을 이룰
과거가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 안에 서서
다시 나의 장래 소망을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장로칼럼 최창수 장로(서초C공동체)

“성탄절을 되찾게 도와주세요”

벌써 해가 저물어 간다. 곧 성탄절이 다가온다. 금년 성탄절에도 교회보다 백화점이나 유흥가가 더 신날 것 같아 걱정된다. 마치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상황 같아서 씁쓸하다.

세상은 성탄절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보낸다. 장사와 열락, 타락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 같아 아쉽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도 모른 채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매우 안타까워해야 한다. 사무엘의 미스바 대각성 성화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교회가 참된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주일에배에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 표어는 교회가 사회선교적 가치를 내걸고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선교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바보행전이다. 따라서 성도들의 사회선교 참여도는 교회의 건강과 영성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사회선교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강물처럼 사회에 흘러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에 은혜가 넘쳐날 때 의로운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의 이웃이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사회선교는 개인의 인격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오직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할 수 있다. 그 래야 바보처럼 손해 봐도 기쁘게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의 신앙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나는 교회를 몹시 사랑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온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 주셨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여러 사역과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제는 신앙에 영적인 근육이 생긴 것 같다. 언제부터인지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호 2:19-20).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쳤던 말씀이 내 눈 앞에서 멈추고 마음을 끌어당겼다. 불현듯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식과 깨달음만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심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해야 하는 분이다. 물을 두려워하거나, 물을 멀리하면 훌륭한 수영선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웃리치도 마찬가지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지체들은 공통적으로 “은혜를 끼쳐려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초C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도포에서 마태교회를 연합해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다. 서초B공동체는 서울역 쪽방촌에서 사회선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역자의 확산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사역들이 온누리교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넘쳐날 때 세상도 교회에 감동할 것이다. 감동이 쌓이면 성탄절을 어떻게 경축해야 할지를 다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교회가 성탄절을 되찾게 도와주세요!”



권사칼럼 황화자 권사(서빙고공동체)

온사랑합창단과의 만남은

2012년 가을,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다. 발달장애인 합창단이 있는데 노래 지도를 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껴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온사랑합창단과 만남이 시작되었다.

나는 평생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것은 생소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달장애인들과의 첫 만남에서 적잖이 당황했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연습 중간에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을 보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노래는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다. 걱정이 많이 되었다.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았다.

온사랑합창단은 전문 성악가들, 음악 전공자들, 특수학교 교사들과 일반 봉사자들이 지도하고 있다. 성악을 전공한 교사들은 두세 명씩 레슨을 해 주었고, 비전공자들은 노래 가사와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여러 성가들과 성가대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전해들은 1부 성가대 권사들은 온사랑합창단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세웠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셨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은 아이들을 변화시켜 나갔고, 아이들의 어머니들도 함께 노래를 하면서 아이들과 더 큰 교감을 나누며 가정도 회복되어 갔다. 어머니들도 노래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큰 도전이었다. 어느 어머니는 평생 남들 앞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삶이 변화되었다며 무척이나 좋아했다.

지난 3년간 시장, 청음, 발성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다. 요즘 한 단계 더 나아가 파트별 연습을 하고 있다. 장애인 아이들의 특성상 타인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지만 잘 해내고 있다.

온사랑합창단 생활은 단순한 음악 수업이 아니라 공동체 훈련이기도 하다. 장애인 아이들이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스스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나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잠 16:9)”는 말씀처럼 온사랑합창단의 걸음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사들과 같이 찬양하는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신앙에세이 이정엽 목사(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시스템에서

18세기 영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두 인물이 있다. 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와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가 그 주인공이다. 매우 냉철한 영국의 무신론 역사가들도 “18~19세기 영국은 실로 이 두 목사에게 의해 구원을 받았다”고 평가할 정도다.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고들 하는데, 두 목회자는 비슷한 시기에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자주 비교를 당하곤 했다.

요한 웨슬리는 진젠도르프 백작의 모라비안 운동에 영향을 받아 감리교를 창시했다. 그는 말년에 미국 지역의 감독으로 섬겼다. 반면 조지 화이트필드는 술집 지배인의 아들로 태어나 옥스퍼드대학 시절에 회심을 해서 21살에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는 스코틀랜드를 14차례 방문하면서 열정적인 설교로 부흥운동을 도왔다. 미국도 7차례 방문했던 화이트필드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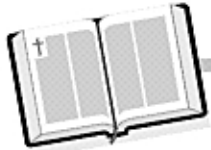
이 두 사람 중에 당연히 청중의 인기를 많이 받은 사람은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였다. 두 사람이 믿는 교리 차이도 컸지만,

교회 역사가들은 두 목사의 설교 스타일의 차이가 컸던 점을 주목한다. 이지적인 면과 교리적인 면을 강조한 웨슬리와는 달리 화이트필드는 열정적이면서도 극적인 설교를 했다. 청중들은 그가 설교하는 곳이라면 야외라도 몰려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의 평가가 달라졌다. 뛰어난 설교자, 사자후(獅子吼)를 발했던 화이트필드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남긴 것이 없다고 회고한 것과는 달리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하고, 이를 통해 19세기 세계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두 사람의 차이는 ‘시스템과 개인의 영향력’ 둘 중에 무엇을 남기려 했느냐에 있다. 열두 제자를 양성하는데 많은 열정을 쏟으셨던 예수님을 보면 무엇이 맞는지 답이 보인다.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와 규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앙도 질서와 규모가 있을 때 건강하다. 그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일관성이 있을 때 공동체는 안정감이 있고, 개인의 은사와 섬김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만일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때마다 다른 기준과 절차들이 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개인의 취

향이나 특성, 판단이 과도하게 주도한다면 의미 없는 낭비가 빚어질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언제나 새로운 모습이었다. 한국을 떠나 미주로 사역지를 옮긴지 7년이 지났는데, 매년 서울을 갈 때 마다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본다.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역 조직에도 변화가 있다. 사역팀장을 맡다가 2년이 지나면 새로운 팀장을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역은 더욱 건강해졌다. 온누리교회가 스타플레이어 한두 사람에게 의해 특징되는 교회가 아닌,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방식을 고집하기 보다는 우리의 방식을 함께 찾고,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배우고, 갈망하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를 위해 적절한 역할 분담과 무엇보다 투명성 있는 의사소통과 역할 감당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스타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조력자가 되어 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긴장을 창조적으로 풀어안기

성도들과 공동체로부터 평가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사 확인 평가서가 있었습니다. 은사발견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월로우릭교회에서도 세미나를 통해서 은사를 스스로 발견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오랫동안 하다가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를 평가해서 답을 하다 보니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고 나왔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은사가 있다고 나왔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답한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것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답이 나온 것입니다. 설문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평가는 실제로 봉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그 영역에서 봉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평가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저 주님을 따를 뿐이고, 성령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주변사람들이 “당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평가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 일곱 명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자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중복되고, 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현실에 대한 판단력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사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때로는 비현실적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이고, 믿음 충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만 앞선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현실은 도외시하고, 뜬구름 잡듯이, 구름 위를 떠다니듯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와 믿음이 동시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 서로를 끌어안는 아름다운 공동체

셋째, 그렇게 일곱 명이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른 편에 있는 이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5절에 나옵니다. 새롭게 세워진 일곱 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갈등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와 사람들이 대상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을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그리스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을 끌어안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니콜라’라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으로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이방이었습니 다. 초대교회가 문화적 편견을 내려놓고, 이방인도 지도자로 세워서 다문화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서 긴장을 창조적으로 풀어안았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그리스와 유대사람들이 구제명단에서 빠진 것은 단순한 누락이나 어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의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뽑아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기준이 달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유대인들의 기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7절). 말씀은 계속 퍼져나갔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옛 언약의 상징인 제사장들도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가려면 공동묘지로 가라”고 했습니다. 공동묘지는 조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문화적 차이, 이념적 차이, 정치적 차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조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정치, 지연, 학연으로 서로 갈등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욱 긴장을 창조적으로 풀어안고 해결해 감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궁금한 창조 과학이야기 4. 창세기 대홍수의 증거



길소희 성도(창조과학 전문사역자)

노아시대에 있었던 전 지구적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화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 국지적인 홍수라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대홍수 사건은 창세기의 창조사건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륙을 가로질러 대규모로 나타나는 암석층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화석묘지들이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적이거나 지구가 수십억 살이라는 연대설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화석(化石, fossil)은 과거에 살았던 피조물이나, 피조물이 남긴 흔적이 돌 등으로 바뀐 것이다. 화석으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현재 살아있는 피조물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화석이 진화론의 증거로 해석되기 보다 창조의 증거이자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대격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준다.

화석은 오늘날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화산재가 덮인 곳에서 구두와 모자, 햄 등이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온천수 등에 넣어 둔 나무가 화석화 작용을 거쳐 화석으로 바뀐 것들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화석들은 과거

에 만들어진 화석과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

첫째, 과거에 만들어진 화석은 대규모로 나타난다. 고생물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남아프리카에서는 뼈 화석이 몇 만 개 수준을 넘어 8천억 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둘째, 화석으로 남아있기 어려운 것들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예를 들어 물고기 비늘이나 지느러미, 부드러운 꽃잎, 피조물의 두개골이 아닌 뇌 등이다. 셋째, 살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퇴적물 등에 묻혀서 화석이 된 것들도 있다. 커다란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순간이나 갑주어가 하늘을 나는 파충류를 낚아채는 극적인 순간을 고스란히 담은 화석들도 발견되고 있다.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의 길이는 400킬로미터가 넘는다. 그랜드캐니언을 이루고 있는 암석층의 두께는 5킬로미터가 넘는다. 어느 정도의 물과 퇴적물 등이 운반되어야 이런 암석층과 대규모 퇴적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석영과 같은 광물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암층과 대규모로 나타나는 사층리 같은 퇴적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쓰나미보다 훨씬 거대한 사건이 있어야만 화석으로 형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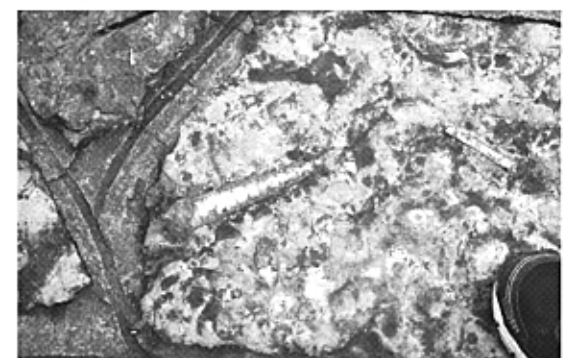
유명한 관광지인 중국 장가계에서도 보도블록에 노틸로이드(nautiloid: 문어나 오징어와 같은 두족류의 한 무리)

암석층과 화석

화석이 있다. 얼마나 흔한지 보도블록 하나에 평균적으로 1개의 노틸로이드 화석이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장가계에서 피조계의 아름다움만 보고, 대홍수 심판의 명백한 증거들은 전혀 모르는 채 지나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암석층과 화석이 진화론 또는 오랜 연대설의 증거인 것처럼 반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인 교육에 세뇌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암석층과 화석이 증거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대규모로 나타나는 암석층과 화석을 통해서 노아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보도블록에 남아있는 노틸로이드 화석.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심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동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 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 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 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 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 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 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 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영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허용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아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병자 팀장 (010-3217-9633)

문화 미디어 정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홍영 전도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자적장배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 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주 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 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I, 4층

다문화공동체예배 11:00 안산M센터II, 3층

다문화파워워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שראל을 위한 정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회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서빙고: 매 주 수 오전 9:15 누리홀

양재: 매 주 수 오전 9:15 화평홀

도곡: 매 주 수 오전 9:30 온유홀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곡 02570-7553

마리아행진 정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정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2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01-8236)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여성사역 교회큐티방

월요나눔방 9/7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화요나눔방 9/7개강 10시-12시30분, 드림홀

수요나눔방 9/2개강 1시-3시, 신관203호

목요나눔방 9/3개강 1시-3시, 신관203호

금요나눔방 9/4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문의: 여성사역(02-3215-3247)

서빙고일대일양육자반

수강신청조건: 일대일 동반자과정수료

온누리등록교인, 세례교인, 순예배참석

(모두 해당되어야 수강가능)

수강신청: 아이스쿨

심검집 장로반

일시: 12월13일~4월 3일 매 주 주일 8:10

장소: 신관 402호

문의: 박미용 집사(010-4760-8835),

김숙경 간사(02-3215-3220)

전구역 장로반

일시: 12월 22일~4월 19일 매 주 화 19:30

장소: 신관 401호

문의: 박준영 집사(010-4705-2179),

김숙경 간사(02-3215-3220)

OEM한국어교실 교사(봉사자)모집

날짜: 매 주 토요일(계절방학있음)

제출서류: 신앙간증문, 자기소개서

지원자격: 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2000선교본부 팀장 간사 모집

모집: 팀장 간사 1명(남여 구분 없음)

필수요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사무행정 기능자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유자

선교 관심자 또는 경험자 우대

업무: 선교 행정 및 기획 지원

근무조건: 교회 내 간사 규정에 따름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

서(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이메일(yusup@onnuri.org)

문의: 전영옥 간사(02-3215-3216)

BEE Korea 간사 모집

모집인원: 1명

자격요건: 3-5년간 본부 간사로 일하며

BEE KOREA의 선교사로 훈련받고 선교

사로 파송받아 나갈 자

근무조건: 주 5일 근무(월-금, 오전 9시-오

후 6시), 토요일기도모임(오전 6시-9시)

-급여는 BEE Korea 내부 규정에 준함

서류: 이력서, 구원간증문, 선교헌신동기

문의: 02-822-9480

접수: 이메일(beeekorea@hanmail.net,

2015년 12월 19일(토)까지

*게시판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분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재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학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진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 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만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을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을(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김범청년부예배: 사랑을(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m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33, *동역 지원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ANKids 겨울방학 영어특강교실

기간: 12월 28일~2016년 1월 29일

대상: 유치부 (5-7세), 초등부 (1-3학년)

요일: 월-금요일 오전 9:30-오후 1:15

(점심포함)

문의: 02542-7152, www.ankids.co.kr

샘물중고등학교 교직원 초빙

분야: 기간제(성경, 국어, 수학, 사회,

체육, 특수, (책임)연구원, IT) 및

파트타임(목공, 연극)

처우: 국공립학교 수준

접수: 12월 15일(화)까지

2015 CGNTV BEST 다큐멘터리



TV: [차세대] MK의 고백 (처음 만나는 MK 이야기)
선교사 자녀들의 고민과 속마음을 들여보는 인터뷰 다큐
• 12월 13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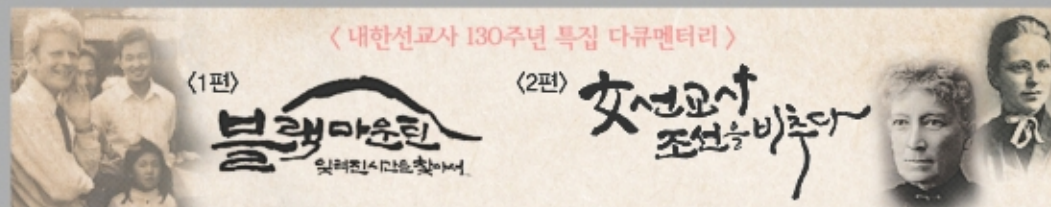
TV: [선교] 다시 쓰는 ACTS 29, 예수바보행진
온누리 선교 30년의 열매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
• 12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TV: [사회선교] 다문화 선교, 이제는 역(逆)파송이다
한국을 찾아 온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과 고국으로 역파송 된 선교사들의 이야기
• 12월 6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TV: [통일한국] 한국교회,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다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통일한국을
향한 길을 모색해보는 다큐멘터리
• 12월 20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무릎공개강좌

별리다 성경 마카데미

- 성경, 체질, 그리고 건강 -

◎강사 : 류모세 선교사

"기질과 체질에 따른 신앙색깔,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예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일시: 2015. 12. 14(월)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5층 CGNTV 스튜디오
등록 및 문의: 010-4902-1022
<문자로 자신의 이름과 '신청' 을 남겨주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CGNTV

TV 프로그램



▷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2/7(월) 오전 11시 허기복 목사 / 밥상공
동체복지재단 대표 '10,500개의 밥알로 나누
는 사랑'
-12/8(화) 오전 11시 김선옥 목사 / 새날을
여는 청소년센터 대표 '지금, 여기, 갈릴리'



▷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목소리
-12/8(화) 오전 11시 30분
같은 비전을 품고 한마음으로 가난한 이웃과
탈북민을 섬기고 있는 남남북녀 이인수, 김명
희 부부의 사랑과 신앙 이야기입니다.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10(목) 오전 11시 30분
중남미 지역의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세워
진 찾아가는 신학교 '월드비전신학대학'을 섬기
고 있는 김선근 선교사(과테말라)의 사역 이야기
입니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able & more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간 편 성 표

12/6(주일)	12/7(월)	12/8(화)	12/9(수)	12/10(목)	12/11(금)	12/12(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문화 선교, 이제는 역 (逆)파송이다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순종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16:50 전선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터리 21:00 [다큐] 악할 때 강함 되시네 23:50 페리 노블의 성장하는 교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목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민 목사 (열매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주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목소리 15:30 2015 임직자스쿨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사예들형제교회) 16:50 [컨퍼런스] 새 하늘과 새 땅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목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10: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11:30 지주촌 반사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N2) 15:30 2014 추앙재단 목회강좌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5 임직자스쿨 21:00 [말씀]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원 패트릭의 사도행전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주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the 기쁨> 11:3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신원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민나교회) 15:30 맞춤특강 <나침반> 16:3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19:00 2015 임직자스쿨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목소리 22:00 동상애 : 우리가 말하 지 못했던 것들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